



즉시 배포용: 2022년 12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을 전국을 선도하는 수준인 6 기가와트로 늘리는 새로운 프레임워크 발표

뉴욕주의 성공적인 에너지 저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의 신속한 성장을 촉진하고 망 신뢰성 및 고객 탄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종합 로드맵

승인될 경우 저장 설비 설치를 통해 약 20억 달러의 주 전력 시스템 비용 향후 절감 예상

2030년까지 주 전력의 7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하고 2040년까지 100% 무배출 전력을 달성하는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목표 지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2030년까지 전국을 선도하는 수준인 6 기가와트 에너지 저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뉴욕주 최대 전기 사용량의 최소 20%를 차지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 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과 뉴욕주 공공서비스부(DPS, Department of Public Service)가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해당 로드맵에는 주 전역에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신속 성장을 촉진하고 망 신뢰성 및 고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주의 에너지 저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일련의 종합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해당 로드맵에 따라 저장 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 전역의 전력 시스템 비용이 약 20억 달러 절감되는 한편, 유해 화석 연료 오염물질 발생이 줄어들어 공중 보건의 개선되는 형태의 기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발표는 2030년까지 주 전력의 70%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발전하고 2040년까지 100% 무배출 전력을 달성하는 주의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 목표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정, 재생가능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전송하는 것은 주 전역에서 배출가스, 특히 전통적인 화석 연료로 인한 유해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인 전력망 개선을 추진하여 다른 주정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NYSERDA와 DPS는 신중하게 시장 개혁 잠재성과 비용 효율적 구매 매커니즘을 평가하여 6 메가와트를 달성하는 한편, 특히 장기 저장을 비롯한 기술 혁신 촉진에 필요한 연구 개발영역을 확인합니다. 주정부 기관은 또한 주정부에서 가장 오염도가 심한 화석 연료 발전 플랜트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저장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Hochul 주지사가 2022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NYSERDA 주도 프로그램 시행을 제안하여 뉴욕주에서 벌크(대규모), 소매(지역사회, 상업, 산업), 주거용 에너지 저장 부분의 추가 4.7 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미 주정부와 계약을 맺고 상업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저장 규모인 1.3 기가와트와 더불어 향후 조달을 통해 뉴욕주는 2030년까지 6 기가와트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Doreen M. Harris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에너지 저장 채택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더욱 많은 풍력 및 태양열 에너지가 우리의 전력망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 발전으로 발생한 오염으로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서 대기 질을 개선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이 발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은 산업계에 차세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뉴욕 주민들이 중요한 기술로부터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Rory M. Christian 공공 서비스부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에너지 저장 개발의 핵심 지지자입니다. 제안된 로드맵은 뉴욕에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매우 중요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로드맵 목표:

1. 약 100만 가구에 최대 4 시간동안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3,000 메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벌크 저장공간을 인덱스 저장 공제(Index Storage Credit) 매커니즘을 통한 구매로 조성. 이는 고객 비용 절감을 최대화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장기적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
2. NYSERDA의 기존 특정 지역 블록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해 약 500,000 가구에 최대 4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1,500 메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소매 저장 공간, 120,000 가구에 최대 2 시간 동안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인 200 메가와트 규모의 새로운 주거 저장 공간.
3. 최소 35%의 프로그램 자금을 활용해 소외 지역사회(Disadvantaged Communities, DACs)에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화석 연료 플랜트 배출가스

감축을 모색하며 DACs 및 화석연료 플랜트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다운타운 지역에서 프로젝트 추진.

4. 전력 유틸리티 기업이 고가치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연구하게 하여 기존 시장에서는 현재 불가능한 비용 효율적인 전송 서비스 모색.
5.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에너지 저장 기술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를 진행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우선 추진.
6. 프로그램의 의무사항으로서 1 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장려하려는 뉴욕주의 노력 강조.

주 정부의 에너지 저장 목표를 확대 적용하면 뉴욕 고객들의 요금 청구서 비용이 0.5% 미만, 즉 평균 거주자의 경우 매달 약 0.46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로드맵은 공공서비스부 [웹사이트](#)에 대한 공청회와 2023년으로 예정된 후속 의사결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 저장은 뉴욕의 무배출 전력망 지원을 위한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대규모로 통합하고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며 가장 수요가 높은 곳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재생 가능 발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뉴욕주 에너지 저장 운영 규모는 130 메가와트이며, 이를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추가 에너지 저장 규모는 1,300 메가와트이며, 상업적 운영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이 건물 및 교통, 산업용 전력의 전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망의 추가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수명이 다한 다운스테이트 화석 연료 발전 시설 은퇴를 지원합니다.

뉴욕 베스트(NY-BEST)의 사무국장인 William A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에너지 저장 로드맵(Energy Storage Roadmap)은 우리의 기후 목표 달성 및 무배출 전력망 건설 노력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뉴욕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6 기가와트라는 목표를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며,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일자리를 확대하고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 뉴욕의 선도적인 지위를 강화합니다. 뉴욕-베스트는 종합 로드맵을 완성한 NYSERDA와 DPS에 축하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력망 에너지 저장으로부터 우리의 구성원 및 뉴욕주 파트너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 명예 교수이자 리튬이온 배터리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M. Stanley Whittingha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에너지 저장 로드맵은 에너지 저장 산업의 주요한 허브로서 뉴욕주의 지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부문의 새로운 제품 개발과 혁신에서 상업화, 제조, 시장 출시 등, 뉴욕은 혁신 산업 성장을 견인할 생태 환경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청정 에너지 연합(**Alliance for Clean Energy New York**) 소속 **Kyle Rab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성장하기 시작한 에너지 저장 산업은 반드시 뉴욕의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이번 제안안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뉴욕의 의사결정자들과 협력하여 에너지 저장 2.0 로드맵(**Energy Storage 2.0 Roadmap**)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현장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기가와트 저장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Gary LaBarbera 뉴욕주 건설 노조 위원회(**New York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은 뉴욕의 청정 에너지 미래에 중요합니다. 뉴욕은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시행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 인프라의 한 부문으로 뉴욕주의 근면한 노동자들을 위해 수천 개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뉴욕주 청정 에너지 목표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조 건설 산업의 구성원들이 적정 임금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 중산층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여 우리 구성원을 위해 기회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주신 **NYSERDA**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의 구성원들은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뉴욕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Julie Tighe 뉴욕 유권자 보존 연합(**New York League of Conservation Voters, NYLCV**)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뉴욕이 전국을 선도하는 기후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건물과 교통 수단, 가정 등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저장 역량을 갖추는 일입니다. **NYLCV**는 2030년까지 6기가와트 저장 역량을 갖추겠다는 **Hochul** 주지사의 목표를 강력히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뉴욕의 2022 에너지 저장 맵(**Energy Storage Map**)과 다면적인 접근법은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적정 임금이라는 목표 역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뉴욕주 국가 주도의 기후 계획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20개에 대한 35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1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16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a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